

동성애와 신학

삼위일체 교리의 빛에서 보는 동성애 문제

1. 동성애는 신자 개인의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신앙의 문제이다!

기독교의 경전은 성경이다. 성경을 오류가 없는 진리로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으로 믿는 기독교인들에게 성경은 신앙의 원천인 동시에 삶의 규범으로서 신앙과 삶의 절대적이고 영속적인 기준이 된다. 성경은 기독교인들에게 영적인 구원의 문제뿐만 아니라 기독교인으로서 이 땅에서의 윤리적 삶의 문제까지도 기독교인이 마땅히 지키고 따라야 할 규범과 표준을 제시해 주고 있다. 기독교회는 시대가 변하고 시대를 따라 사상이 변하고 삶의 방식이 변하여도 역사 속에서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성경이 가르치는 진리와 그 진리를 믿는 신앙을 보존하고 계승하여 왔다. 그런 기독교 역사 가운데 때로는 어떤 사안이 성경대로 믿는 신앙에 관련된 도전으로 인식될 때에 성경대로의 신앙을 순수하게 보존





● 김윤태 원장

고려신학대학원에서 목회학석사 학위를, Nottingham University에서 신학석사 학위를, 그리고 백석대학교에서 신학박사 학위를 취득하였다. 한국복음주의 조직신학회 회장을 역임하였고, 현재 백석대학교 기독교전문대학원장으로 재직 중이며, 한국개혁신학회 부회장, 사단법인 두리하나 이사 및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다.

하고 계승하여 왔다. 그런 기독교 역사 가운데 때로는 어떤 사안이 성경대로 믿는 신앙에 관련된 도전으로 인식될 때에 성경대로의 신앙을 순수하게 보존하고자 하는 교회와 신자들은 그들이 믿는 믿음을 저버리기 보다는 차라리 죽음으로 성경 진리를 따르고자 하였고 그럼으로 성경대로의 신앙을 지키고자 하였다. 성경역사와 기독교역사 속에서 볼 수 있듯, 때때로 교회적 배교의 시대가 있었다. 그러나 비록 신자라 불리는 사람들과 교회라 불리는 다수가 성경대로의 신앙을 저버리는 배교의 시대 가운데서도 남은 그루터기는 항상 있어왔음을 우리는 안다. 곧 성경의 역사나 교회의 역사 가운데 가장 신앙적으로 어려운 시대에도 언제나 성경대로의 신앙을 지키고자 하는 참된 교회와 신자들이 항상 있어왔으며 그들의 순교적 신앙을 통해서 성경의 진리는 보존 전승되어 왔음을 우리는 알고 있다. 우리는 사도신경을 따라 “나는 교회를 믿습시다!”라고 고백한다. 이 고백에는 이런 성경의 증거를 따라 교회의 역사를 믿음의 눈으로 볼 때 “나는 교회 역사 속에서 교회의 주인이 사람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교회의 주(Lord)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성령

으로 항상 교회를 주권적으로 통치하여 오심을 믿습시다”라는 의미가 담겨있다. 또한 동시에 그럼으로 “나는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이 성경진리가 교회를 통해 섭리적으로 보존되어 오게 하신 것임을 믿으며, 비록 교회가 육신의 눈으로 볼 때는 연약하고 인간적인 것으로 보일지라도 신앙의 눈으로 볼 때는 주님이 이 땅에 성경진리를 보존하기 위해 세우고 붙들어 통치하시는 영적 기관으로 ‘진리의 기둥과 터’임을 믿습시다”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고 할 것이다.

처음 이스라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 중심으로 시작된 기독교회는 이후 예루살렘에서 유럽으로 확장되어 이방인으로서 유럽인 중심의 교회로, 그리고 유럽에서 다시 미국으로 확장되고, 유럽과 미국에서 아프리카와 아시아 대륙으로, 그리고 마침내 한국으로까지 확장되어왔다. 한편 교회역사를 볼 때 항상 시대적 주류교회가 성경적 진리신앙을 떠날 때 주님의 축대는 성경대로의 신앙을 지키는 교회로 옮겨지는 방식으로 교회는 확장되어져 왔다. 현재 세계교회의 지형을 살펴볼 때 성경을 진리판단의 주체라 여기는 인간이성의

판단 밑에 놓고 인간경험에 맞추어 신학을 하려고 하는, 합리적, 실증적 계몽주의 사상가들의 가르침을 따라 cogito전통을 따르는 유럽의 교회들은 생명력을 잃고 죽어가고 있지만, 여전히 이성을 성경 아래 복종시키고 성경의 영적 진리는 오직 중생한 신자가 성령의 조명을 받아 믿음으로만 알 수 있다고 하는, 초대교회 교부들을 따라 credo전통을 따르는 아시아와 아프리카의 교회들은 생명력 있게 부흥하고 성장하고 있다.

오늘날 우리는 우리에게 기독교신앙을 전파해 준, 우리가 기독교의 본류라 여겨왔던, 유럽과 미국의 교회들이 동성애 문제와 관련하여 시대적 조류에 영합하여 성경의 가르침을 떠나 힘없이 무너져가는 모습을 보고 있다. 이런 시대적 현상은 오늘 한국교회와 신자들에게 동성애와 관련하여 성경대로의 신앙을 보존하고 따를 것인지 시대정신을 따라 우리도 함께 배도의 길을 걸을 것인지 신앙적 결단을 요청하고 있다. 동성애와 관련한 문제와 관련하여 혹자는 이는 신자 개인의 선택의 문제라고 말한다. 그러나 이는 신자 개인의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성경의 진리를 따르는 신앙을 지킬 것인가 하는 신앙의 문제이다. 오늘 한국교회에 어떤 신자나 교회가 동성애와 관련된 문제에 어떤 태도를 가지는가 하는 것은 그 사람이나 교회가 주님이 성령으로 다스리시는 참된 교회에 속한 자들이 될 것인가 아니면 교회라는 이름은 가지고 있으나 거짓 교회에 속한 자들이 될 것인가 하는 것을 판별하는 시금석이 될 수 있는 것이다. 말하자

면 동성애에 대한 신자의 태도는 신자 개인의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참된 교회에 속할 것인가 아니면 거짓 교회에 속할 것인가 하는 신앙적인 문제인 것이다. 시대의 사조와 학문은 변하고 사람들은 사라져갔지만 그러나 진리의 말씀인 성경과 교회의 신앙은 하나님의 특별하신 섭리 가운데 오늘날까지 유지 보존되고 있다. 성경 진리와 교회의 신앙은 어느 한 시대의 어떤 특정한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의미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시대 모든 사람들에게 영속적이고 항구적이며 보편적인 진리이다. 오늘 우리 시대에 교회가 맞고 있는 동성애와 관련한 도전은 단순히 시대적 조류나 문화적 차원이 아니라 항구적인 성경 진리와 신앙에 대한 도전으로 인식된다. 한국교회가 동성애 문제와 관련하여 성경적 순수한 신앙의 길을 따른다면 교회의 주되신 주님은 한국교회를 지키시고 보존하셔서 성경진리를 파수하는 진리의 촛대로 세우시고 한국교회를 통하여 다시 한 번 세계의 교회를 새롭게 하시는 섭리적 도구로 사용하실 뿐 아니라 성경적 신앙과 참된 교회를 세계로 확장 하시는 역사를 이루실 것으로 확신한다.

2. 삼위일체 교리와 동성애

동성애와 관련한 성경적 기독교적 입장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글들이 나와 있음으로 그런 성경적 신학적 입장을 반복할 필요는 없을 것

으로 생각한다. 다만 이 글에서는 그동안 다루어져 오지 않던, 조금은 다른 각도에서, 곧 기독교 신학과 신앙의 근본인 삼위일체교리의 빛에서 생명과 성의 문제를 살펴보고 그런 맥락에서 동성애의 문제를 살펴보고자 한다.

(1) 성경의 핵심 주제: 생명

우리는 우리 주위에서 성경공부 모임이든 교회 목사님의 설교든 신학자들의 신학강의든 여러 가지 경로와 모양을 통해 성경의 강조점과 핵심 주제가 무엇인지에 대해 매우 다양한 견해들을 들어왔다. 어떤 이들은 구속사로서 약속과 성취를 강조하기도 하고, 또 어떤 이는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성경전체를 조망하며 설명하기도 하고, 또는 하나님 사랑이웃 사랑이라는 관점에서 사랑의 기독교를 설파하기도 하고, 이신칭의의 복음을 중심으로 성경을 읽거나, 율법과 하나님의 의, 성화와 기독교인의 윤리적 삶을 강조하는 등등 다 열거할 수도 없을 만큼 많은 성경에 관한 강의와 이야기들을 우리는 우리 주변에서 들어왔다. 어떤 이야기를 들어왔든 상관없이 가장 간단히 말해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인간을 위한 계시의 말씀이라는 점에는 모두가 동의할 것이다. 성경의 이야기는 인간에게 인간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알려 주기위한 세상의 창조와 그러한 뜻을 위해 창조된 인간의 이야기로부터 시작해서 이러한 인간을 위

한 하나님의 뜻과 관련한 하나님의 세상통치와 경륜에 관한 이야기를 통해서 마지막에는 이러한 하나님의 뜻에 따른 세상의 종말과 인간의 최종운명에 관한 이야기로 끝이 난다. 이런 성경 이야기 전체를 요약하면 ‘창조-타락-구속-완성’이라는 패러다임으로 요약된다. 한편, 성경이 말하는 인간을 위한 하나님의 뜻은 ‘생명’과 관련한 것으로 이런 점에서 성경은 ‘생명의 말씀’, 곧 생명에 관한 말씀, 생명을 얻게 하는 말씀이다. 이렇게 볼 때 ‘창조-타락-구속-완성’이라는 성경의 패러다임은 인간을 위한 하나님의 뜻으로서 ‘생명’과 관련한 인간의 4가지 다른 상태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한데, 그것은 각기 ‘생명의 약속을 받아 생명을 얻도록 창조된 인간-생명의 약속을 잃어버리고 생명에서 떠난 인간-생명의 약속을 다시 회복 받는 인간-최종적으로 생명에 들어간 인간’으로 말해볼 수 있다. 그러므로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성경의 중심 주제는 ‘생명’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는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요한복음 5장 39절을 통해 보면 예수께서 유대인 성경학자들에게 물으시고 말씀하셨다. “너희가 성경에서 무엇을 얻고자 성경을 읽고 연구하느냐? 영생을 얻고자 함이 아니냐? 이 생명은 내 안에 있는 것으로 나는 모든 성경이 말하고 있는 대로 이 생명을 너희에게 주기 위해 하늘에서 보냄을 받아 온 자다. 그러므로 성경은 내게 대해 말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어지는 요한복음의 말씀들에서 예수께서 일관되게 하신 말씀들을 요약하면 “내가 온 것은 내 아버지의 뜻을 따라 왔으

며,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은 너희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다. 내 안에 생명이 있으며 이 생명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으로서 나와 아버지는 이 생명으로 하나이다. 나를 보내신 내 아버지의 뜻은 나를 믿는 자에게는 그들에게도 내 안에 있는 생명을 주어 나와 아버지가 이 생명으로 하나된 것 같이 그들도 이 생명에 참여하여 우리와 하나가 되게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친히 하시는 말씀에 따르면 성경계시의 목적은 우리에게 영생, 곧 영원한 생명에 관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성경의 핵심 주제는 ‘생명’이며, 성경은 “생명의 말씀”이다. 따라서 우리가 성경에서 무엇을 이야기 하고 무엇을 강조하든지 이 생명과 관련되지 않는 것은 없어야 하며 항상 이 생명과 관련하여 성경은 연구되어야 한다.

하나님의 모든 계시는 인간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인간에게 알리시는 것으로 이 생명과 관한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 창조(일반계시)와 구속(특별계시)은 이 생명과 관한 것으로, 창조세상은 이 생명에 관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고 얻게 하기 위한 것이었으나 타락한 인간이 더 이상 창조세상을 통해서는 이 생명에 관한 하나님의 뜻을 알 수도 얻을 수도 없게 되었으므로 다시 복음을 통해 이 생명에 관한 하나님의 뜻을 다시 알리시고 얻게 하시는 것이 일반계시로서의 창조와 특별계시로서의 복음의 의미인 것이다. 인간을 위한 하나님의 뜻으로서 이 생명은 초자연적 영적 영원한 신적 생명으로 자연적 육적 한시적 생명

과는 구별된다. 그러나 그 둘 사이에는 상호 불가분리의 관계가 있다.

이 천상적(초자연적)이고 영적이며 영원한 신적 생명은 이 땅위의 인간이나 동식물의 지상적(자연적) 육적 물질적 한시적 생명과는 본질적으로 구별되는 것이지만, 그럼에도 동시에 불가분리의 관계에 있는(not separated but distinguished) 것이다. 이 생명은 한편 그런 창조세상의 생태계에서 볼 수 있는 생물학적 생명의 원천이 된다는 점에서 생물학적 생명과 불가분리의 관계에 있지만 그러나 또 한편 그것들과는 속성상 질적으로 차원이 다른 생명으로서, 하나님의 생명, 영적 생명, 영원한 생명이라는 점에서는 구별된다. 생물학적 육적생명과 신적 영적생명은 모형과 원형의 관계로 이 둘은 서로 섞이거나(not mixed) 혼동되거나(not confused) 나누어지거나(not divided) 분리됨이 없이(not separated) 서로 구별된다(but distinguished). 예수는 이 생명을 주시기를 위하여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아 이 땅에 오신 성자 하나님으로서 그는 자신을 세상에 생명을 주는 하늘에서 내리는 생명의 떡(요 6:35, 48)이라고 말씀하셨다. 또한 그는 자신 안에 이 생명이 있으며 그를 믿는 자에게는 이 생명을 믿는 자들에게도 주시는 것이 자신을 보내신 하늘 아버지의 뜻이라고 말씀하셨다(요 6:40). 이렇게 볼 때 성경의 중심 주제는 ‘생명’으로서 이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 또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며, 이는 아브라함 언약, 모세 언약, 다윗

언약 등의 구약의 언약들의 약속과 신약 성도들에게 주어진 새언약의 약속으로서 신, 구약 성경을 한 하나님의 약속으로 통일성 있게 만들고 구약과 신약의 성도들을 하나의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는 성경의 핵심 주제이다.

(2) 삼위일체 하나님의 생명

인간을 위한 하나님의 뜻으로서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 곧 삼위일체 하나님의 생명이다. 예수께서는 자신 안에 있는 이 생명이 하늘에 계신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라고 말씀하시며, 성육신하기 전부터 성부 하나님과 함께 가지신 생명이라고 말씀하신다. 이런 점에서 성경은 예수님을 성부 하나님에게서 나신 자 곧 성자 하나님이라고 부른다. 이 말은 곧 이 생명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말이다. 성경에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생명과 관련하여 다양한 파생적 표현들이 나타난다. 곧 하나님은 생명이시다고 말하거나, 살아계시는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 하나님의 생명, 생명의 주권자 되신 하나님, 살려주시는 하나님, 생명의 주 등등의 표현이 그것이다.

성경에서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은 하나님의 내적 삶의 방식으로 설명되며, 이러한 설명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존재방식으로 이해된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내적 존재방식을 일컫는 전문적인 용어는 ‘내재적 삼위일체’(Immanent Trinity)이다. 내재적 삼위일체를 설명하는 성경적 용어는 ‘낳으심’(beget) 또

는 ‘낳아지지 않으심’(unbegotten), ‘나아지심’(begotten), ‘나오심’(proceeding)이다. 초월적인 영역 하나님의 나라에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은 서로 관계적 방식으로 존재하신다. 곧 성부는 성자를 낳으심으로(beget) 성자와의 관계에서 성자의 성부로, 성자는 성부에게서 낳아지심으로(begotten) 성부와와의 관계에서 성부의 성자로, 그리고 성령은 성부와 성자에게서 나오심으로(proceeding) 성부와 성자와의 관계에서 성부와 성자의 성령으로 존재하신다. 이렇게 관계적 방식으로 존재하실 때 하나님 안에 질서가 있다. 그것은 성부가 제1위이시고, 성자가 제2위이시며 성령이 제3위이시다. 이 때 이 질서는 높고 낮음의 질서가 아니라 순서상의 질서로서,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볼 때 내재적 삼위일체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께서 공통의 신적 생명을 가지고 관계적 방식으로 질서 있게 존재하시면서 서로 사랑의 사귀를 사귀고 계시는 것을 말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렇게 살아계신 삼위일체 하나님은 공통의 생명을 가지고 바른 관계와 질서 가운데 서로 사랑의 사귀를 사귀면서 삼위일체로 존재하신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생명이란 이와 같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생명을 말하는 것이며, 살아계신 하나님이란 삼위일체 하나님의 내적 삶을 말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는 목적은 인간에게도 이 생명을 주어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사랑의 사귀에 참여하게 하시기 위함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계신 곳이다. 하나님은 생명이시며, 하나님

의 나라는 생명의 나라이다. 그러므로 마태복음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요한복음에서 ‘생명’은 동의어이다. 마태복음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동일한 의미로 요한복음에서는 생명에 들어가는 것으로 말해진다. 신약성경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생명은 동의어로 사용되고 있다. 성경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생명의 복음’과 동의어인 것이다.

하나님의 생명 또는 하나님의 나라는 두 가지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의와 사랑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의의 나라인 동시에 사랑의 나라이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의와 사랑을 추구해야 한다. 여기서 의와 사랑은 서로 밀접한 관련이 있다. 곧 사랑의 동기로 성취하는 의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누구든지 그 속에 이 생명이 있는 자는, 곧 그 속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 있는 자는 사랑의 동기로 의를 성취하는 것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율법은 생명을 약속하고 있는데, 율법이 요구하는 것은 사랑의 동기로 의를 성취하라는 것이다. 율법에 나타난 의는 바른 관계와 질서로서, 율법은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그리고 인간과 인간 사이에 마땅히 있어야 할 바른 관계와 질서를 규정하고 있는 것이며 또한 율법은 이러한 바른 관계와 질서를 지킴에 문자적으로 형식적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동기에서 지키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성령으로 거듭난 신자는 이미 그 속에 이 예수의 생명이 있는 자이고 다른 말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그 속

에 임해 있어 시작된 자이다. 이 생명 곧 하나님의 나라는 종말적으로 완성되는 것이지만, 이 땅에서 이미 신자의 속에 시작되어 맛보고 있으며 신자의 속에서 점진적으로 자라나는 것이다. 신자의 삶은 이러한 생명 곧 하나님의 나라가 그 속에 임하여 점진적으로 자라나는 것이 신자의 삶이며 이를 성화라고 한다. 신자의 삶 곧 성화는 생명의 성령의 사역의 결과로서 이 생명을 신자의 속에 적용하셔서 신자를 거듭나게 하신 생명의 성령께서는 또한 신자의 의지를 새롭게 하셔서 의지의 ‘원함’(will)도 주시고 원하는 바를 행할 수 있는 의지의 ‘능력’(power)도 주셔서 사랑의 동기로 율법을 성취할 수 있게 하심으로 이 생명이 신자의 속에 점진적으로 자라게도 하신다.

(3) 창조세상에 나타난 생명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것은 인간을 위한 것으로서, 인간에게도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생명을 주셔서 삼위일체 하나님과 사랑의 사귀를 가질 수 있게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기 위한 것이다. 구원도 실상은 죄로 인하여 이러한 하나님의 생명과 사랑의 사귀에서 떠난 인간에게 다시 생명을 주시고 사랑의 사귀에 참여하게 하시려는 것에 다름 아니다(요일 1:1-4). 하나님의 세상 창조나 구원은 하나님의 사역으로서 이 또한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이다. 자기 자신 안에 삼위일체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은 자기 밖

으로 나타나 일하실 때에도 삼위일체로 일하신다. 하나님 자기 자신 안의 존재방식을 ‘내재적 삼위일체’(Immanent Trinity)라고 한다면, 이러한 삼위일체 하나님이 자기 밖으로 나타나 사역하시는 방식을 ‘경륜적 삼위일체’(Economic Trinity)라고 한다.

경륜적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방식은 ‘성부로부터’(from the Father) ‘성자를 통하여’(through the Son) ‘성령으로’(by the Spirit)이다. 비록 밖으로 나타나 일하실 때에도 성부의 속성은 보이지 않고 숨겨지신다. 보이지 않고 숨겨지시는 성부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나타내시는 분은 성자 하나님으로, 성자를 이런 점에서 성부의 형상(image)이라고 부른다. 성령은 그 능력으로 성자의 사역을 효과있게 하신다. 성부의 뜻은 밖으로 들어오는 모든 신적 사역의 시작 또는 원천으로서 창조도 구원도 모두 성부의 뜻으로부터 시작된다. 보이지 않는 성부와 성부의 뜻은 성자 하나님의 지혜를 통하여 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내어지며 성령 하나님은 그 능력으로 성자의 사역을 효과있게 하심으로 결과적으로 성부의 뜻을 완성하신다. 여기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에 어떤 순서 또는 질서가 있음을 볼 수 있는데, 이는 높고 낮음의 질서가 아니라 순서상의 질서이며, 이런 점에서 하나님의 질서의 하나님이다. 또한 삼위의 사역에는 질서가 있을 뿐 아니라 삼위와 그들의 사역에는 사랑의 섬김의 원리가 작동하는 가운데 상호 불가분리의 관계가 있다. 곧 성부의 뜻은 고유하게 성부의 뜻이지만 성부의

뜻을 보면 그 속에 성자의 지혜와 성령의 능력이 전체로 함께 보이고, 성자의 지혜는 고유하게 성자의 지혜이지만 성자의 지혜를 보는 순간 성자의 지혜 안에 성부의 뜻과 성령의 능력이 동시에 전체로 함께 보인다. 마찬가지로 성령의 능력은 고유하게 성령의 능력이지만 성령의 능력 안에 성부의 뜻과 성자의 지혜가 동시에 전체로 함께 보인다. 그러나 그러면서도 삼위와 삼위의 사역은 서로 섞이거나 혼동을 일으키거나 나누어지거나 분리됨이 없이 구별되면서도(not mixed, not confused, not divided, not separated, but distinguished) 상호 침투하여 상관적인 통일(perichoresis)을 이루고 있다.

세상의 창조는 이러한 경륜적 삼위일체의 사역으로 이해된다. 성부의 뜻은 인간에게도 하나님의 생명을 주어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의 사귄에 참여하게 하고자 하는 것이며, 이러한 성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자 하나님의 지혜와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이 창조된다. 요한복음 1장은 창조 전 곧 영원전부터 존재하시는 내재적(존재론적) 삼위일체 하나님의 존재방식과 창조에 있어서 경륜적(사역론적) 삼위일체 사이의 관계를 잘 보여 준다. 1절과 2절은 세상을 창조하기 전 영원전부터 존재하시는 성부와 성자의 관계적 존재방식을 이야기 해 준다면, 3절과 4절은 인간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얻게 하고자 하시는 성부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성자 하나님을 통해 창조된 세상에 나타나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설명해주고 있다. 이는 잠언 8장 22-36절과 병

행하는 구절로, 잠언에서는 성부의 뜻을 따라 성자의 지혜를 통해 창조된 세상에 성부의 뜻으로서 인간을 위한 성자의 생명이 어떻게 나타나 있는지를 더 자세히 설명해주고 있다. 이 신적 지혜이신 성자께서 가지신, 성자 안에 있는 이 생명은 성자께서 성자를 낳으신(생명을 주신) 성부와 함께 창조 전부터 가지신 생명으로 성부의 뜻은 이 성자의 생명을 인간에게도 주시고자 하는 것이다. 창조된 세상에는 성자가 보이도록 창조되었고 성자 안에 있는 생명이 마치 빛처럼 분명히 보이도록 창조되었다. 세상은 단순히 무에서 유로 창조된 것이 아니라 그 속에 관계와 질서를 갖도록 창조되었고, 이처럼 창조 세상에 보이는 관계와 질서(자연법)에는 성자의 지혜에 따른 것으로 여기에는 하나님의 생명과 이 생명의 특성으로서 하나님의 의와 사랑이 보이도록 창조되었다. 성경은 여러 곳에서 자연법 곧 창조의 관계와 질서에는 하나님의 의가 분명히 보이도록 되어있다고 밝히고 있으며, 인간이 타락한 이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진 모세율법도 타락한 인간이 창조세계에 분명히 보여지는 하나님의 의를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이를 문자로 기록하여 알게 해주는 것에 다름 아닌 것임을 말하고 있다.

창조세상은 하나님의 생명과 더불어 이 생명의 특징으로서 하나님의 의와 사랑이 보이도록 창조되었다. 생태계에 보이는 다양한 동, 식물의 생명체들은 진화에 따른 것이라기 보다는 각기 종류대로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에 따른 것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보여주고

있다. 우리가 자연생태계의 건강성을 이야기 할 때 기독교적 관점에서 본다면 이는 생태계 속에 있는 창조의 관계와 질서가 다양한 생물들 상호간의 의존과 섬김을 통해 잘 보존되는 것이다. 이는 예로서 꿀벌이 사라지면 연쇄적으로 생태계의 교란이 일어나고 생태계의 건강성(생명력)이 사라지게 되는 것에서 잘 볼 수 있다. 이는 인간의 건강을 이야기 할 때도 같다. 근골격계 순환기계 신경계 소화기계 등등의 인간의 신체의 각 기관들은 각기 독립적이지만 그러나 유기적 관계와 질서 속에 상호 섬김이 이루어질 때 건강(생명의 충만함)이 유지되는 것이다. 이처럼 창조된 세상에는 이 생명이 보이도록 창조되었고, 이 생명의 특성으로서 질서와 사랑이 보이도록 창조되었다.

(4) 하나님의 형상과 생명과 성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것은 다른 피조물의 창조와는 매우 구별된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image of God)이라고 일컬어진다. 그것은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들 가운데 오로지 인간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은 인간은 다른 모든 피조물들과는 구별되는 존엄하고 탁월한 존재라는 의미로서, 인간의 인간다움(인간성)은 바로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인 것에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형상을 훼손하는 것은 인간성에 대한 훼손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형상을 말살하는 것은 인간성을 말살하는 것이 된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은 인간이 하나님의 생명과 사랑의 사귄에 참여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이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생명과 사랑의 사귄에 참여하는 것, 이것이 인간의 탁월함의 극치이고 인간의 지고한 행복이고 창조된 인간이 추구해야 할 궁극의 목표인 것이다. 하나님은 다른 어떤 피조물, 심지어 천사도 삼위일체 하나님의 생명과 사랑의 사귄에 참여할 수 있는 존재로 창조하지 않으셨고 이런 생명과 사귄의 약속을 주시지 않으셨다.

하나님의 형상이란 하나님을 닮았다는 말이다. 그런데, 인간이 어떤 점에서 하나님을 닮았다는 말인가? 비록 인간의 육체적 외형도 인간을 다른 동물이나 피조물과 구별되게 하는 것이라 하더라도(그런 점에서 인간의 육체도 하나님의 형상에서 예외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하더라도) 그러나 영이신 하나님은 육체가 없으시다는 점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인간의 외형적 육체와는 다른 어떤 것, 곧 인간에게 있는 또 다른 어떤 것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고 말하고 있다. 남자는 여자 사이에는 관계와 질서가 있다. 곧 남자는 여자에 대해서 남자로 존재하고, 여자는 남자에 대해서 여자로 존재한다. 또한 남자와 여자는 둘이 합하여 생명의 연합을 이루며 사랑의 사귄을 사귀도록 창조되었다. 이러한 남자와 여

자 사이에 있는 관계와 질서, 생명의 연합 그리고 사랑의 사귄은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 있는 관계와 질서, 생명의 연합, 사랑의 사귄을 반영하도록 창조된 것이며, 이런 점에서 남자와 여자가 인간으로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며 둘이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과 인간의 생명과 사랑의 연합을 가르쳐 주시기 위한 것이다. 하나님과 인간이 생명과 사랑의 연합을 이루는 것을 성경은 결혼의 유비로 설명한다. 곧 남자와 여자의 결혼은 창조의 질서로서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남, 여의 결혼이라는 제도를 내신 것은 영적으로는 하나님과 인간의 생명과 사랑의 영적 신비적 연합의 의미를 육적 결혼이라는 제도를 통해 깨닫게 하며 상기시키기 위함이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남자와 여자 사이에는 관계와 질서가 있다. 곧 남자는 여자와의 관계에서 여자에 대한 남자로, 여자는 남자와의 관계에서 남자의 여자로 창조되었다. 이런 창조의 원리와 질서를 따라 남자가 없으면 여자가 여자로 존재할 수 없고 여자가 없이 남자가 남자로 존재할 수 없다. 이 둘이 합하여 한 생명의 연합을 이루는 것이 결혼이며 이런 결혼 관계 속에서 남자(남편)와 여자(아내)는 서로 마땅한 관계와 질서를 지키면서도 사랑의 동기에서 서로를 섬기는 가운데 건강한 가정을 이루게 된다. 이 때 이러한 건강한 가정, 곧 남자와 여자가 서로 사랑의 동기에서 섬기는 가운데

마땅한 관계와 질서를 지키는 생명의 연합을 이루는 것을 성경은 하나님 나라의 모형으로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다. 이러한 남자와 여자의 결혼의 유비는 더 나아가 그리스도와 교회의 연합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다.

를 막아야 하는 것이다.

(5) 삼위일체교리와 동성애

이상에서 살펴본 바에 기초해서 볼 때 동성애는 인간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셔서 하나님의 형상이 되게 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거부하는 행위일 뿐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는 행위로서 인간성의 파괴이며, 인간의 창조목적으로서 지고한 행복을 거부하는 것으로, 결과적으로 인간의 파멸과 비참과 불행을 가져오는 심각한 and 끔찍한 죄이다. 따라서 기독교인들에게 동성애는 단순히 개인의 선택의 문제이거나 사회문화의 한 현상으로 치부해 버릴 수 없다. 동성애는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인간 창조의 목적을 악의적으로 거부하는 것이며 결혼의 성경적 의미를 위배하는 것이다. 성경이 동성애에 대해서 항상 심각한 경고와 저주를 선언하고 있는 것은 이와 같은 이유 때문이다. 동성애자는 하나님의 나라 곧 하나님과의 생명의 연합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이 성경의 일관되고 명확한 가르침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성경의 가르침을 믿는 우리 기독교 신자들에게 동성애는 기독교 신앙의 본질에 대한 도전으로 이해되며 기독교인들은 순교적 신앙으로 이